

# 의사의 여덟종류

최덕용/광성고 교목



합정동에서 양평동을 향하여 양화대교를 건너다 보면 왼쪽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다. 그 공원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이도 많지 않다.

공원 안에 들어서면 교회가 하나 있다. “연합교회”(The Union Church)라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교회이고 바로 이곳 공원은 외국인 묘지 공원이다.

한국의 초창기 유명한 선교사가 모두 여기서 포근한 잠에 빠져있다.

그 묘지의 중앙에서 1991년 4월 17일 오전 11시 장례식의 마지막 의식 하관식이 있었다. “고 셔우드 홀 박사 대한결핵협회장(葬)”이었다. 셔우드 홀 박사가 묻히는 그 무덤에는 이미 비석이 하나 서 있다.

WILLIAM JAMES HALL  
PIONEER MEDICAL MISSIONARY  
TO PYONG YANG KOREA  
b, CANADA 1860—d, KOREA 1894.  
HIS WIFE  
ROSETTA S b, U.S.A 1865.

“한국의 평양에서 의료선교의 개척자 W. J. 홀”의 묘비명이다. 그 비석 맨 밑에는 작은 글씨로 희미하게 “살거나 죽거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영어로 새겨져 있다.

이 묘지에 11월 24일이 되면 해마다 방문하여 헌화하고 예배드리는 학생과 목사, 교사가 있다. 그들은 광성고등학교의 학생과 교목이다. 왜냐하면 이 (William James Hall, M. D) 선교사는 평양에서 의료선교와 교육사업을 동시에 시작하였고 그 학교의 원래 이름이 광성학교였기 때문이다. 광성학교는 흔히 격물학당(格物學堂)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광성의 설립자인 홀 박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전의 평양으로 가보기로 하자.

1892년 12월초 닥터 홀은 한국의 서부 내륙지방의 선교기지를 모색하기 위해 3차의 선교지 시찰을 끝내고 평양에서 서울로 오고 있었다. 나귀 한 마리에 짐을 싣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도로를 혼자서

오고 있었다. 그런데 길위에서 강도에게 살해당한 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 시체 곁에는 상처가 심해 거의 죽어가는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만약에 치료해 주지 않으면 추운 겨울 날씨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처음 본 순간 닥터 홀은 조금 망설였다. 강도가 근처에 있다면 홀 자신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여기에 팔려들지 말고 그냥 지나갈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홀은 시간과 돈에 여유가 없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는 우선 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한 다음 짐을 실었던 나귀에 그사람을 태우고 그날 아침에 떠났던 여관을 향하여 길을 되돌아갔다. 여관에 도착한 그는 여관주인이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동정심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여관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절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분개했다.

간절한 설득과 힘든 흥정끝에 주인은 마침내 이 부상자가 목을 방을 내어 놓았다. 그는 여관을 나서면서 나중에 평양에 가는 길에 여관에서 약속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겠다고 다짐했다. 갖고 있던 돈은 모두 여관주인에게 다 주었으므로 닥터 홀은 하루에 한끼밖에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걸었으므로 거의 지쳐서 쓰러질 뻔 했다. 그런데 그때 닥터 홀은 하나님 이 보낸 사람을 만났다. 동료 의사를 만난 것이었다. 사실 그 의사는 길을 잘못 들어 홀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닥터 홀은 1894년 1월 부인 로제타 홀과 셔우드 홀(아들)을 데리고 평양으로 이주하였다. 당시 평양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인 조수의 이름으로 몇달전 집을 구입하였는데 평양의 기생들이 사용하던 집이었다. 1894년 2월 이미 닥터 홀은 13명의 아이들을 모아 학교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한국 최초의 내지 학교였으며 한글과 한문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다. 사실 이 학교와 병원의 개설은 고난의 꽃에서 결실된 열매이다.

홀의 가족이 평양으로 왔을 때 당시의 평양감사는 외국인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는 왕실의 인척이었다. 그의 권력과 세도는 막강하여 왕실의 명령도 무시할 정도였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감금이나 체형은 국제조약에 대한 위반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홀을 체포하고 고문하는 대신 홀의 조수들을 체포하여 혹독한 매질과 고문을 하였다. 그것은 홀에 대한 위협이었다. 조정의 석방지시도 무시하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조정에서 2차로 보낸 전문은 매우 강경한 것이었다. "즉시 수감자들을 석방하라. 석방여부 보고바람, 만일 석방하지 않으면 책인추궁 있을 것임." 이에 할 수 없이 김창식 등 홀의 조수들을 석방하였다. 이러한 해산의 고통으로 '97년의 역사를 지닌 광성중·고등학교가 탄생한 것이다. 광성학교는 몇차례의 변화를 겪으면서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신학자들,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을 세 사람이나 키워냈다. 홍현설, 윤성범, 김용옥 학장이 그들이다. 또한 정치가이자 목사인 정일형 박사의 모교이기도 하다.

그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9월 15일부터 시가전이 벌어져 많은 사상

자가 났다. 16일에는 일본군이 평양시를 장악했다. 모든 선교사들이 서울로 철수했으나 홀은 자신이 의사로서 서울로 철수해선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시내 곳곳에 시체가 널려 있었고 부상자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홀이 운영하는 병원은 삼시간에 군대전용 병원이 되었다. 그는 혼자서 약제사, 간호사, 안내인의 일까지 맡으며 수고하였다. 그는 타고난 의사였다. 환자들을 안심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 지칠줄 모르고 일하면서 착오가 없었다. 그는 환자를 대할 때 사랑과 동정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이것이 치료의 기적을 가져오는 비결이었다.

그러나 닥터 홀은 부상한 중환자들을 밤낮없이 치료하다가 건강을 크게 해쳤다. 너무나 쇠약해져서 그 자신 열병에 걸리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서울로 이송돼 왔으나 1894년 11월 24일 저녁, 황혼이 아름다운 그때 그 영혼은 황혼에 반짝이는 저녁별을 따라 주님께로 가셨다. 그때 그의 아들 셔우드는 돌을 갓 넘긴 어린아이였다.

결혼생활 2년 남짓, 사랑하는 남편이 영원한 나라로 떠나 버리자 로제타는 장례식이 끝난 얼마후 고향으로 돌아간다. 달콤한 사랑은 너무나 짧았고 이별의 슬픔은 너무나 컸다. 홀의 고향 글렌 뷰엘에서 아름다운 숲과 초원을 거닐면서 로제타는 수없이 질문하였다. 홀과의 사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로제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녀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다. 사랑하는 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조선, 아직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검은 눈동자가 그녀를 불렀다.

소명의식을 새롭게 발견한 닥터 셔우드는 책을 쓰기 시작 하였다. 그녀가 쓴 책의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 홀의 생애”이다. 이 책은 놀라운 책이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둔의 나라 조선에 대하여 당시 그녀가 집필하고 편집한 글들은 조선인보다 더 조선의 정체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 책속의 삽화들은 한국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관찰하고 파악하였다. 이 책의 수익금은 홀기념병원의 건립에 충당하였다. 또한 이와함께 로제타는 조선의 장님들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뉴욕맹인학원의 원장인 윌리엄 웨이트(William Wait)를 찾아가 그가 고안한 점자 구조를 배웠다. 한글에 가장 잘 맞는 점자 구조가 웨이트가 개발한 “뉴욕 포인트”란 점자법이었다.

한국 선교에 대한 열망은 그녀를 미국에서 떠나게 했다. 1897년 다시 한국에 돌아온 로제타는 보구여관(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을 잠시 맡고 있다가 남편의 선교지인 평양으로 갔다. 그렇게 꺾박하던 평양의 조감사는 그의 부인이 병들었을 때 로제타에게 왕진을 청했고 몇차례의 시술끝에 완치되었다. 감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100개의 계란과 닭 세 마리로 감사를 표시했다. 감사가 감사의 표시로 감사의 선물을 보냈던 것이다. 로제타는 지혜로운 여성이었다. 그녀가 평양에서 부인병원을 열려고 했을 때 감사에게 병원작명을 부탁하였다. 그는 기쁘게 광혜녀원(廣惠女院)이라고 지어 주었다. 그녀는 평양에서 아동병원을 설립하였고 맹인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하였다. 시작은 무엇이나 미약한 법이다. 당시 한국인의 의식에는 맹

인이란 밑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맹인을 위한 학교를 개교함으로써 당시의 의식있는 한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맹인뿐만 아니라 얼마후에는 병어리까지도 교육하여 맹아학교로 발전시킨다. 닥터 로제타 홀, 그녀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의식 개혁의 선구자로서 우리의 역사에 기록됨이 마땅하다.

1940년 8월 당시 해주구세병원 원장이던 미국인 의사를 일본 경찰이 간첩 혐의로 체포하였다. 그를 심문하던 일본헌병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되풀이하여 질문한 것이 있다.

“당신네는 부부가 의사다. 고국인 미국에서 두 사람이 일한다면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을텐데 왜 여기서 고생인가? 무엇 때문에 이 가난한 땅에와서 그 고생을 하는 것인가?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중년의 의사가 대답한다.

“당신은 일본 군인이다. 당신의 천왕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 충성은 당신이 받는 봉급과는 상관없을 것이다. 전쟁하다 목숨을 잃어도 그 봉급과는 관계없는 일 아닌가?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봉급과는 관계없다. 죽어도 그분께 충성을 다한다.”

일본 헌병은 이 의사를 3개월의 징역이나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의사 부부는 가재도구와 심지어 담요 의복까지 팔아서 천신만고 1천불의 벌금을 마련하였다.

이 중년의 인상 좋고 다정한 의사가 W.J. 홀의 아들 셔우드 홀 박사이다. 그

는 생후 1년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손에 양육되었다. 한국의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 커서는 캐나다의 토론토 의과대학을 다녀 의사가 된 홀이 다시 한국땅을 밟은 것은 1926년 4월, 그의 어머니가 회갑이 되던 해였다.

그는 곧 해주구세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2년뒤 결핵요양원을 설립한다. 그 다음해 안식일이 되어 미국에 가는 길에 크리스마스 썰의 창시자인 E.P.비셀을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돌아왔다. 1932년 이 땅에 처음으로 X-MAS 썰을 보급하였다. X-MAS 썰 도안은 거북선을 그렸는데 총독부에서 허가하지 않아서 남대문으로 도안을 대치하였다. 그가 발행한 X-MAS 썰 도안은 철저히 한국적인 것이었다.

그는 마음으로 한국을 사랑한 분이다. 한국에 대한 그의 이해는 놀라운 바 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은 김동열씨 번역으로 동아일보사에서 펴냈는데 그책의 자료는 우리 한국인이 보기에든 날카로운 관찰로 인해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동의보감”이라는 소설에 보니 의사에는 여덟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사람잡는 살의(殺醫) 속이는 사의(詐醫) 돈만 아는 망의(妄醫), 광의(狂醫), 혼의(昏醫), 약의(藥醫), 식의(食醫), 등이 있는데 가장 높은 경지의 의사는 심의(心醫)라고 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공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래서 환자가 그 의사의 눈빛만 보고도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는 의사라는 것이다. 감히 말하건대 닥터 홀 부자는 심의(心醫)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라고 하고 싶다. 卍